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으로 돌파하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지지부진

여성노조를 비롯한 3개 노조는 각 지역교육청과 교육부에 지난 해 4월,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이미 4개 지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임금협약은 안됨) 나머지 13곳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사전 준비를 위한 절차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것과 임금 관련 핵심 5대 요구(호봉제실시, 급식비지급, 명절휴가비지급, 상여금지급, 복지포인트 증액 등)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임금 관련한 5대 요구에 대해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우리의 핵심 5대요구안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과 장기근무가산급 1년에 5천원 인상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급속격차 3만원안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특히 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에는 안이 없는 상태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법의 판결 때문에 교섭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야되면 한다

우리 노조들은 올해를 호봉제 도입의 해로 정하고 최초의 요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노조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5대 요구 쟁취를 위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인 시위, 서명, 농성, 3만 서울상경집회 등 총력을 기울여 투쟁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전이 없는 단체교섭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노동조합의 법적 고유권한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오는 11월 13일 총파업을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쟁취하자.

광주전남지부, 드디어 광주교육청과 단체협약



여성노조가 광주에서 2001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꾸준히 활동한 결과, 10월 16일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광주교육청과 체결하였다. 단협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시간·회의시간 확보, 근로시간면제자 인정, 공무원과 동일한 휴일·휴가 실시, 교육연수 등 업무수행 시 출장비 지급 등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2013년 국립 학교비정규직 임금·단체협약(직종별협약포함)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투표기간 : 2013년 10월 14일(월) 09:00~11월 8일(금) 18:00
- 투표방법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등
- 우편투표는 11월 8일 18시까지 도과분에 편함
- 투표대상 : 각 노조 국·공립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 투표장소 : 각 노조 별도 공고에 따름

2013. 10. 04

전국공공운수노조서비스노조총합 위원장 이상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



〈총파업 투쟁계획〉

10.02	대표자 담화문 발표
10.04	쟁의찬반투표공고
10.04~11.08	쟁의찬반투표
11.11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11.13	총파업 돌입

학교비정규직, 교육부 교섭 진행 중

지난 5월 29일,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교육부와 노조의 상견례가 교육부에서 있었다. 여성노조를 비롯하여 3개 노조 15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하였고 교육부에서도 각 직종별 부서가 참여하였다. 이 단체교섭이 있기까지 교육부가 '국립학교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노조에서 불가피하게 온갖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국립학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국가(교육부)'라는 판결과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결과 교섭지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에 교육부는 사용자를 인정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차례의 실무교섭과 9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교육부는 예산부족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지역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 서울 | 서강대 분회 요구사항 노사협의회에서 해결

9월 정기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서강대분회 하조남 분회장 및 분회임원들과 김정임 서울지부장은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현장순회를 하였다. 현장순회에서 모아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토요근무인원 현재 13명에서 3명 추가 ▲ 대기실 2곳 전기장판 보충설치 ▲ 청소용품교체 ▲ 대청소 일년반 주기 박리 작업 요구 ▲ 산재 및 병가 대체인력 즉각 충원 ▲ 2013년 특근수당 미지급분 소급』 등 이었다. 지부는 9월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을 해결해 냈다. 서울지부는 현장순회에서 조합원들이 싸운 점심을 함께 나누며 정돈 나누었다.

| 서울 | 서강대 분회 건강관리 파트너 요가 실시



지난 8월 19일, 9월 12일 서강대 분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서강대 체육관에서 몸풀기 동작 등 건강관리 파트너요가를 하였다. 왕인순 요가이완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한 건강관리 파트너 요가는 동료와 함께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요가였다. 서강대 체육관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서강대 분회 조합원들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빌면서, 두 번의 요가 교실이 너무 아쉬워 이후 요가반을 만들자는 요구도 있었다.

| 경기 |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교육실무직원 단체교섭 빠른 타결 목표

1년이 넘게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교육실무직원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며, 지난 10월 2일 4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날 경기지부는 단체협약안 97개조 325항 중 291여항을 합의하였다.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외주, 하도급, 파견, 용역] [임금의 정의와 구성] [노동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과 직종별 합의는 쟁점으로 남아있다. 지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빠른 타결이 목표다.

지난 9월 30일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무실과 타임오프 1명을 지원받았다. 학교교육실무직원 단체교섭 우선협약에 따른 지원이다.

지부는 경기도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무실 공간을 임대받았다. 의정부 신곡동 소재 경기지부 의정부지회 사무실이 10월 29일 개소한다.

| 인천 | 채드워국제학교 부당해고 투쟁



인천 송도국제도시 안에 위치한 채드워국제학교는 한해 등록금만 약 4천만원을 내야 다닐 수 있는 고급 사립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조합원이 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용역회사에 교섭을 요청하였고, 아침 출근투쟁을 시작하였다. 채드워국제학교의 용역구조는 독특하다. 채드워국제학교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송도유지재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A라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용역회사가 다시 미화부분을 B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한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다. 채드워국제학교는 그저 건물만 빌려 쓰며 한국에서 학교만 운영하고 있다 보니 청소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에 법적으로 책임 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노동조합과의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학생 한명 등록금의 삼분의 일도 안되는 저임금이고, 발 뻗고 설만한 공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공간마저 갖추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한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부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우리의 요구사항인 원직복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투쟁!!

| 전북 | 여성노동자 재충전 프로그램 '신라문화 탐방기'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전북지부와 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경주 신라문화를 탐방하였다. 전북지부 조합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가정과 직장일 속에서 모처럼 가진 이번 탐방에서 쌓였던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풀어내었다. 또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하여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참된 삶을 위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탐방 후 뒤돌아 자리에서 지역 직종을 넘어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으며, 현장에 돌아가서는 조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하였다.



지난 9월 30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88CC 경기보조원들이 부당징계 철회 및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149차 집회를 진행하였다. 회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해온지 횡수로 6년차, 우리 조합원들은 '질긴 놈이 이긴다'는 각오로 흔들림 없이 복직이 쟁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전북 | 학교방문 순회간담회 진행

지난 7월 8일 전북 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성과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시간 면제자 2명이 지부 상근을 시작하였다. 상근자 2명은 지역·직종별 학교를 하루에 2학교에서 5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직종에 대한 고민들을 들었다. 또한 체결한 단체협약서와 전국상황 및 지역상황 등을 설명하였고, 학교비정규직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전북지부는 전북 교육청과 임금협정 교섭이 진행중이다. 현재 전북 교육청은【전보발령】관련 기준안을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전남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길거리 캠페인



광주전남지부 상근자 및 시간제 일자리 조사 상담원은 지난 9월 25일 오후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하였다. 이날 광주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우리의 5대 요구인 '호봉제, 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알리며,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를 하였다. 10월에도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여 여성노조를 홍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즐거운 만남과 소통의 힐링캠프” 2013 여성노조 간접고용 조합원 수련회

조직강화와 조합원 단결 및 재충전을 위한 여성 노조 간접고용 조합원 수련회가 지난 9월 27일, 28일 충북 진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다. 서울, 인천, 대구경북, 대전충청 간접고용 조합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양희연 아그니 힐링센터 소장이 요가로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었다. 분회별 투쟁보고와 교류가 이어졌으며, 나지현 위원장이 간접고용과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 및 강연을 하였다. 이해란 여성노조 자문위원이 연출한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준비한 복수노조와 간접고용에 대한 연극 관람과 소감나누기가 있었다. 또한 분회별로 준비한 노래 대항전 후 뒤풀이도 이어졌으며, 다음날 수련원 산책로를 따라 산책과 명상을 하였다. 평가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별로 조합원 소감을 나누었다.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하조남 분회장은 “여성노조 많은 분회 간부님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즐거웠던 수련회 짧은 1박2일이 아쉬운 여운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인천지부 인하 전문대 분회 김명희 조합원은 “이번 수련회는 잊지 못할 수련회로 영원히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늘 나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수련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대구경북지부 경북대 생활관 분회 서명희 대의원은 “난 힘든 노동자로 생각하며 살았다. 연극을 보면서 가슴에 맺혀있는 무언가가 후련하였다. 산책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를 생각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였다.

대전충청지부 목원대 분회 최복임 분회장은 “매번 수련회 하면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해 좀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하였다.

| 대전충청 | 알찬 목원대 분회 조합원 모임

목원대 분회 8월 조합원 전체모임은 14번째 여성노조 창립일인 지난 29일에 진행되어 특별하였다. 창립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떡케익 썰기도 하고 서로에게 축하를 주고받는 시간이었다. 9월 모임은 ‘7번방의 선물’ 영화보기였다. ‘7번방의 선물’ 영화는 조합원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안겨주었다. 통통부은 눈과 벌게진 얼굴을 서로 보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바쁜 일상에서 여유를 갖고 영화문화를 접한 조합원들은 즐거워했다. 목원대 분회 조합원들은 알찬 8월, 9월 조합원 모임에 이어 향후 모임도 기대하고 있다.

| 대구경북 | 여성노동자학교 진행



경북 지역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진행된 여성노동자학교가 구미를 시작으로 포항, 경주, 경산지역까지 총 4개 지역을 돌며 지난 10월 14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여성노동자학교는 대구 일하는 여성아카데미에서 고생해 주었으며, 총 4강으로 진행되었다. 조합원 80% 이상이 참여한 이번 여성노동자학교 수료식에서 한 조합원은 “여성노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민주노총과 연대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일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답을 찾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투쟁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결의도 밝혔다.

| 울산 |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알기쉬운 요양보호사 노동법 교실’ 진행



지난 4개월여 동안 200여명의 요양보호사들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이에 지난 10월 10일 1강을 시작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알기 쉬운 요양보호사 노동법 교실”을 11월 14일까지 총 4강으로 진행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요양보호사예요!”라는 주제로 진

행한 1강은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현실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봉사심으로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부터는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 울산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교육청 앞 1인시위

울산 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인 ‘교육 공무직 조례 시행 규칙’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탄과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일 울산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지침(안)이 공문으로 각 학교로 발송되었다. 조례 시행규칙 관리 지침(안)(취업규칙)에 대해 의견 수렴을 11일까지 받기 위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가 학교장에서 울산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으나 취업규칙에 우리들의 의견이 수렴될지 알 수가 없다. 320여건의 조례 시행 규칙 의견도 수렴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불통인 울산 교육청 압박 투쟁을 준비하며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경남 |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절차협의의 시작



지난 9월 5일부터 다섯 차례 경남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협의가 있었다. 경남 교육청은 실무교섭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본교섭은 개회식, 체결식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섭의 제를 추가로 제안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교섭위원회에 대해 무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무의미한 절차합의를 계속하기 보다 10월 17일 본교섭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는 경남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 경남 | 시간제일자리 상담사업을 통한 학교 방문 홍보활동

지난 8월부터 시간제 일자리 조사상담원은 학교별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소를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인식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냈다. 직종별 연수처도 방문하여 소식지와 여성노조 신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재]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 상담, 조사사업을 시작하며 ②

시간제가 조각내는 여성노동자의 시간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시간제 일자리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시간 노동자’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최근 칼럼을 통해 ‘노동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을 어떻게 양질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력 단절에 가려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시간 단절’ 문제가 오히려 여성 노동자 삶의 문제를 더 잘 드러낸다.

예전 직장 동료 중에 결혼 후 두 딸을 키우는 허씨의 넋두리를 자주 들곤 했다. 아침밥상을 차리고 아이들과 남편의 채비를 돕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그녀는 학교로 출근한다. 7시간 근무를 마친 그녀는 결코 단시간이라 볼 수 없는 애매한 시간인 5시에 퇴근한다. 근무시간 동안에도 딸들의 밥이나 숙제를 전화로 틈틈이 챙긴다. 그녀는 퇴근할 때면 “이제 집으로 출근한다”고 말하며 종종히 사라진다. 집에 가면 다시 가사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간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노동자 김씨는 파인드잡 시간제 일자리 채용관에서 광고를 보고 시간제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녀는 괜찮은 전일제 일자리가 있다면 시간제로는 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사는 비용이야 시간제나 전일제나 똑같이 드니까 말이다. 이력서에 쓸 만한 경력이 마땅치 않았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전화 상담이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손에 쥐는 임금은 쥐꼬리만도 못하다.

20대 취업준비생인 박씨는 졸업한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취업하셨나요?” 웬지 마음이 쪼그라든 그녀는 여성가족부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협약까지 체결했다

는 스타벅스에서 일한다고 말을 못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시간선택제 방식으로 하루 5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채용하여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바리스타’인 박씨의 시급은 최저임금인 5천원이다. 5시간으로 취업 준비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그녀는 저녁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녀의 시간은 시간제의 규칙에 따라 조각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면? 신규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면? 일자리를 두 개로 쪼개어 5시간 시간선택제로 만들면?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면? 이러한 숫자놀음 속에 여성 노동자의 시간은 어떻게 쪼개어지는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지금 시간제 고용 확대 정책의 문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된 편인 네덜란드에서조차 전일제는 남성 일자리, 시간제는 여성일자리는 성별 이분법이 고착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허씨에게는 ‘일·가정양립’이 ‘일·가정 이중부담’일 뿐이다. 김씨에게는 공공보육 등 임금 외의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두세개로 쪼개진 시간제 일자리가 오히려 박씨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쪼먹고 있다.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상담원을 조사한 결과 시간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다른 아님 ‘저임금’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이 곧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전부가 되는 한국에서, 먹고 살만큼 벌어야 하거나 가사노동까지 당연하게 요구받는 저임금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시간은 다시금 조각조각 날 수 밖에 없다. 이 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 박이경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

「연봉제 얼음! 호봉제 땡! 학비 투쟁 바캉스」 수련회에서 더 많은 단결과 더 힘찬 투쟁 결의



광주전남, 전북, 경남, 인천, 경기, 서울, 대구경북지역 등에서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연봉제 얼음! 호봉제 땡! 학비 투쟁 바캉스” 2013년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수련회를 대전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나지현 위원장은 인사말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더 많은 단결, 더 힘찬 투쟁을 준비할 때입니다.’라며 ‘여성노조의 소중한 간부들이 여러분이 결심하고 더 많은 단결을 모아내는 만큼 학교비정규직의 미래는 더욱 환해질 것입니다.’고 전하였다.

지역별 교섭보고 및 투쟁사례 발표가 이어진 후 최순임 사무처장이 ‘학교비정규직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모둠별 토론도 있었다. 학교비정규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더 많은 단결과 더 힘찬 투쟁으로 ‘제대로 된 호봉제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하반기 총파업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학교비정규직, 과학직종 모임 가져

과학실험원(과학실무원)들의 업종통합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대전충청지부에서 전국의 과학업무를 하고 있는 간부조합원들이 모였다. 2002



년 여성노조에 가입하여 과학실험원(과학실무원)들의 고충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씬 없이 달려온 조합원들이다. 그 때의 모습 그대로 ‘과학실험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때로는 본인들의 처우개선은 뒤로 미룬 채 활동하여 왔다.

지역상황을 나누는 자리에서 최근에 광주지역의 실험실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누누이 여성노조에서 외쳤던 과학실의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급식실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과학실 근무자는 위험수당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며 미루자 광주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항의시위를 하며 과학실의 위험한 환경을 널리 알렸다.

또한 모임을 하면서 업종이 통합된 지역의 경우 과학 실험을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모니터(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올바른 실험실습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과학실험원(과학실무원)들의 전문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무리한 업종통합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실험원(과학실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하여 위험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우선임을 알 수 있었다.